강진, '전지훈련 메카' 명성 입증

1월부터 8개 종목 선수단 방문
경제효과 25억5천만원 규모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도 개최

최근 강진에서 열린 '제70회 3·1절 기념 전국투어 도로사이클대회' 참가 선수들이 강진 관내를 질주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이 겨울철 전지훈련 메카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 초까지 8개 종목 3,200여 명의 선수단이 강진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1월 초부터 중등부 축구 16팀, 배드민턴 초·중·고등부 33팀, 탁구 80팀, 배구 8팀, 야구 8팀, 볼링 15팀, 테니스 10팀, 사이클 50팀 등 8개 종목 총 2,700여 명의 선수단이 강진을 찾았다. 연인원으로 따지면 약 3만여 명에 달한다. 경제효과는 25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전남발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지훈련팀 선수 1인당 하루 8만 5,000원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는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도 열렸다. 자전거 라이더들의 향연인 '제70회 3·1절 기념 전국투어 도로사이클대회' 및 '2023년 마스터즈 사이클 강진투어'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강진군 일원에서 펼쳐졌다.

4월에는 세팍타크로 국가대표 팀 40여 명이 10일간 강진에서 전지훈련을 펼치며, 11월에는 펜싱 청소년 국가대표 후보 선수 60여 명이 3주간 맹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숙박, 식당, 카페 등 지역 상인들도 전지훈련팀 방문을 반기고 있다.

강진에서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는 정인철 대표는 "지난해 대비 매출이 50% 가량 올랐다.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바쁘게 보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선수단이 계속 방문할 수 있도록 더 쾌적한 숙박 환경과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이주미 사이클 현 국가대표는 "강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따뜻하고 스포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면서 "최고의 컨디션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있어 다음에도 꼭 다시 찾고 싶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진군은 선수단이 최적의 환경에서 훈련이나 경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웨이트 트레이닝센터 및 실내 체육관, 축구전용 구장 등 편의 시설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 또 훈련 시 필요한 각종 소모품과 음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선수단 숙소와 식당, 훈련장을 오가는 버스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전지훈련과 스포츠대회 개최가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올해 하계 훈련은 물론, 연중 전지훈련 팀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강진군에는 사이클, 축구, 탁구 등 9개 종목에 연인원 3만 3,000여 명의 전지훈련팀이 방문한 결과, 2022년 전지훈련 전라남도 시·군별 유치 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나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

사회참여 확대 등 4대 목표 수립

나주시가 장애인 등 학습 소외계층을 포용하고 모든 시민이 학습하기 좋은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했다.

나주시는 올해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전하고 차별 없는 학습도시 나주'를 비전으로 4대 핵심 목표를 수립, 10개 분야, 장애인 맞춤형 27개 평생학습을 추진할 예정이다.

4대 목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인권공동체 구축', '모든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 및 건강권 확대' 등이다.

분야별로는 기초문해, 학력보완,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다.

또 시민참여, 장애인 사회통합, 가족세대 간 소통, 자발적 학습모임 지원, 장애인 학습도시 기반구축 등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평생학습 기회를 폭넓게 보장할 계획이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2020년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며 도약하는 나주 평생교육'을 비전으로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모든 시민이 자기계발 기회를 보장 받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2021년 제1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특별상, 2022년 우수상, 2023년 EBS평생학습정책 어워드 좋은정책상을 수상하는 등 평생학습 분야 정책 우수성과 경쟁력을 연이어 입증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통해 12만 시민 누구든지 배움에 있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어디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장벽 없는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이재순 기자

김순은 전 위원장, 장성아카데미 강의

오늘 '자치분권 2.0시대' 주제

16일 열리는 21세기장성아카데미에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사진)이 강단에 선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행정학자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지방자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2.0시대의 성공 여부는 주민에게 달려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치와 경제, 행정에 참여하는 길이 제도적으로 열렸으니 주민들이 지역의 주체가 되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 강연이 자치분권2.0시대 성공을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1세기장성아카데미는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현장 강연은 별도 예약 없이 선착순 입장으로 들을 수 있다. 장성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청강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평생교육센터(061-390-8577)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전일용 기자

현대삼호중공업, 조직활성화 교육

10월까지 사원 3,900여명 대상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전 사원 조직활성화 교육'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도모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오는 10월까지 신안 자은도 씨원리조트에서 총 39차수에 걸쳐 전 사원 3,9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조직활성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조직 구성원 상호 간 신뢰 강화 및 소통과 화합의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수당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 내용은 ▲하나되어 펼치는 하모니의 감동과 파워 ▲힐링요가 및 명상 ▲행복한 소통 등 다양한 팀별 활동으로 구성됐다. 특히, 1일차 오후에는 임원으로 구성된 격려방문단이 직접 교육장을 방문해 교육 대상 사원들과 함께 만찬을 하며 격의 없는 소통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영암=최복섭 기자

최근 열린 샤인머스캣 교육 모습. /함평군 제공

함평, 고품질 샤인머스캣 생산 재배 농가 기술교육

함평군이 최근 고품질 샤인머스캣 생산을 위한 재배 농가 기술교육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최근 재배면적 급증에 따른 샤인머스캣 품질 저하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군은 샤인머스캣 재배 농업인 80여 명을 대상으로 표준재배 매뉴얼을 배부하고 최근 3회에 걸쳐 현장 영농교육을 추진했다.

특히, 적정 품위 유지를 위한 연차별 관리법, 적정 착과량 유지요령 등의 교육이 실시돼 참여 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농업인은 "각자의 방식으로 재배하다 보니 품위가 균일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우수 품질의 샤인머스캣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샤인머스캣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함평=윤예중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재경농협 해남향우회, 고향기부금 기탁

해남을 응원하는 출향인들의 고향사랑 기부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경농협 해남향우회는 고향사랑기부금 550만원을 해남군에 기탁했다.

최근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재경농협 해남향우회 이기선 회장과 회원, 해남군 농협조합협의회 의장 윤치영 옥천농협장, 농협중앙회 이사 장승영 해남농협장과 김차진 해남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경농협 해남향우회 이기선 회장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소중히 모은 기부금을 고향 해남발전을 위해 기탁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기 정착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영광, 착한가게 221호점 현판 전달

영광군은 최근 영광읍 영대로에 있는 영광두레협동조합에 영광곳간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게 221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2006년부터 16년 동안 굴비 사업을 하면서 보리굴비 특유의 비린내를 잡는 건조 숙성으로 특허를 내는 등 현재까지 남다른 굴비 사랑으로 소임을 다 하고 있는 최봉희 대표는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다시 지역민들에게 돌려주고 싶어 기부처를 찾던 중 영광곳간을 알았다"면서 "작은 금액이지만 위기 가정에게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기부 의사를 전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희망이 모이는 영광곳간에 동행해 준 최봉희 대표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영광=곽용순 기자

강진 작천면 이장단, 이웃돕기 성금

강진군 작천면 이장단이 최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작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현금 50만원을 기탁하며, 작천면 행복나눔 기부천사 13호의 탄생을 알렸다.

후원된 기탁금은 추후에 전남공동모금회를 통해 배분되며, 작천면 주민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정항체 작천면 이장단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각 마을 이장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했다"며 "앞으로도 이장님들과 함께 이웃을 위한 행복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